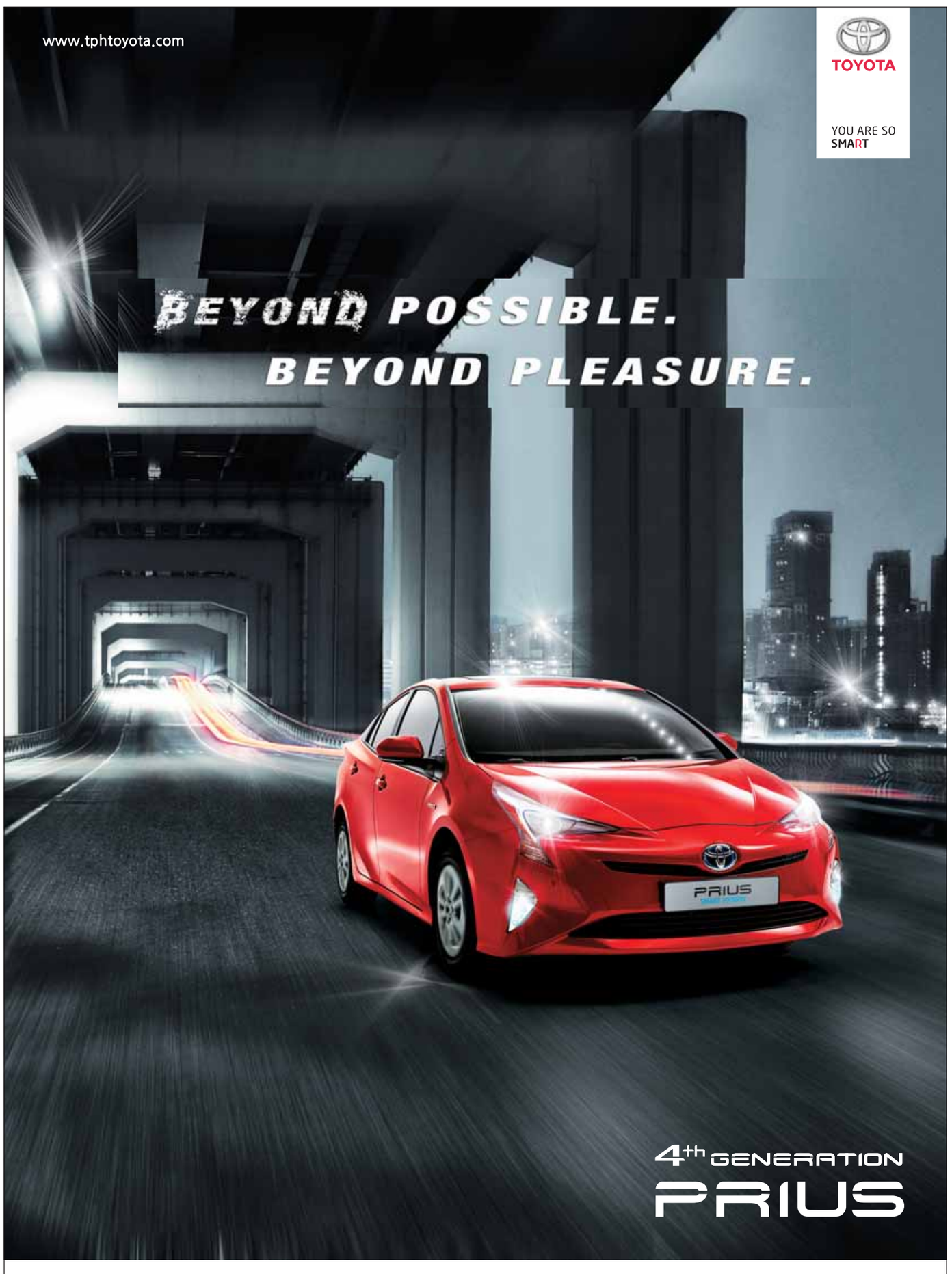
자동차 경주와 레포츠의 만남…다시 들썩이는 영암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드라이버가 직접 운전하는 레이싱카를 타는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5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레이싱카 타보고 드론·보트 조종 해군 3함대 의장대·군악대 공연 지상·하늘·수상 '3각 입체 축제'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가 결합된 복합 스포츠 이벤트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F1경주장)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영암 F1경주장에서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는 메인 이벤트인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FOS)' 대회에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터 및 레저스포츠 체험행사를 더해 가정의 달 5월,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마당 행사는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가 잘 조화를 이룬 가운데 '지상·하늘·수상·문화'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상에서는 꿈의 슈퍼카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타고 F1경주장 서킷을 주행하는 슈퍼카 택시타임, 무선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RC카 체험, 가상 레이싱 체험, 자동차 경주 관련 특수장비를 볼 수 있는 레이싱장비 전시 등 자동차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타요버스'를 타고 서킷을 직접 달리는 타요버스 사파리체험은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3회씩 운영돼 벌써부터 어린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늘에서는 인간새 모터패러글라이딩이 연막을 뿜으며 행사장 상공을 선회하고 드론 조종 체험과 종이비행기 제작이 준비 돼 온 가족의 동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에서는 안전하게 제작된 에어바운스 풀장에서 세발자전거 모양의 페달보트와 무선으로 보트를 조정하는 RC보트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쿠킹 클래스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나라가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보드게임이 온 가족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최초로 공개될 영암 F1경주장 마스코트인 '슈퍼 고라니' 캐릭터가 경주장을 찾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트장을 지나 주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터널구간에는 모터스포츠의 과거,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모터스포츠 역사관과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적기 등이 마련돼 교육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인기에 힘입어 해군 3함대의 화려하고 절도 있는 의장대 공연과 군악대 공연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푸드트럭 페스티벌과 오토캠핑장을 마련해 먹을거리와 잘거리 만족도도 높였다. 푸드트럭 페스티벌은 스타쉐프, 연예인, 청년창업자가 한 조를 이뤄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팀이 우승을 하는 푸드트럭 레이스와 스타쉐프들의 합동 쿠킹쇼, 남도 식자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올레피 팝업 레스토랑이 관람객들의 미각을 자극한다.

오토캠핑장은 최상의 편의시설을 갖춘 럭셔리 캠핑인 글램핑존은 물론 캠핑 장비를 완비한 텐트 캠핑존, 장비를 가지고 오는 방문객을 위한 일반 캠핑존을 갖추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송경일 전남도 F1지원담당관은 "F1경주장은 지금도 연중 280일이 활용될 정도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동차와 레포츠가 결합된 행사를 마련한 만큼 온 가족이 와서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및 'AFOS 대회' 주요 프로그램

5월 5일	슈퍼카 택시 체험, 서킷 사파리드론 체험존, 레이싱 장비 전시, 캐릭터 포토존, 블럭놀이, 대왕 비눗방울, 카트 체험, 비눗방울, 빅휠보트, 키즈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가상 레이싱 체험, 해군 군 장비 전시	개막식(모터패러글라이딩쇼, 군악대 공연). 걸그룹 '마마무' 축하공연, 캠핑장 운영
5월 6~11일		푸드트럭 페스티벌, 캠핑장 운영
5월 13일	AFOS 대회 연습주행	
5월 14일	AFOS 대회 예선	
5월 15일	AFOS 대회 예선 및 결승	걸그룹 '여자친구' 공연, 그리드 워크 및 피트워크 이벤트

※ 타요버스 사파리 체험일정 : 5월 5일 ~ 7일, 5월 9일 ~ 11일 / 총 6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리는 AFOS 대회는 4개 대회로 세분돼 있다. 왼쪽부터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TCR시리즈 출전 차, 포뮬러 르노 2.0 대회 경주차.

세계적 슈퍼카 총출동…다시 보는 총알 질주

AFOS 국제자동차경주대회

5월 13일~15일 F1경주장서 김국영 vs 자동차 100m 경주도

아시아 최대 스피드 축제인 '2016 AFOS(Asia Festival of Speed)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국내 개최 3회째를 맞는 AFOS 대회는 자동차 경주의 최고봉인 포뮬러 원(F1) 한국대회가 끊긴 상황에서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리는 최고급 자동차 경주로 마니아층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당연히 이번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의 메인 이벤트다.

AFOS 대회는 GT, TCR, 르노 클리오, 포뮬러 르노 2.0 등 4개 대회로 나눠 열린다. 최상급 클래스인 GT(Grand touring)는 대당 4억원을 넘는 페라리458, 아우디 R8, 애스턴마틴 밴티지, 벤틀리 컨티넨탈, 맥라렌 650S 등 8개 메이커 20대 이상의 슈퍼카가 출전한다.

500마력이 넘는 엔진에 최고 시속 330㎞, 100m 도달 시간이 3초대에 불과한 슈퍼카들의 경주는 마치 영화 '분노의 질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스릴을 안겨준다.

TCR(Touring Car Race)은 혼다, 폭스바겐, 오펠, 세아트, 포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2000cc급 양산 차량이 참가해 저비용 고효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대회로 자동차회사의 명예가 걸려있다.

F1팬들의 향수를 달래줄 포뮬러 르노 2.0은 포뮬러 특유의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F1에 진출하기 위한 아시아 유망주들이 펼치는 치열한 레이스가 박진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 클리오는 르노자동차의 클리오 차종으로만 경쟁하는 '원 메이크' 레이스로 각 선수들의 드라이빙 능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내 100m 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선수와 자동차의 100m 달리기와 전남도 22개 시군 대표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펼치는 카트레이스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유명 드라이버와 레이스 차량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리드워크, 레이싱걸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 인기 걸그룹 여자친구의 공연은 AFOS 대회의 흥겨운 이벤트가 될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